###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 · 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③ (나):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④ (나):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한다.

#### <문제 상황>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학생 A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 이때 구호 단체에서 온 기부 권고 문자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대신 기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1원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 ② 선의지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여야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③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만한 것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행하세요.
- ④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 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고려하여 기부 여부를 정하세요.
-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에 있다. 또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을 비판에 노출 하고, 필요시 논증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 발언은 개선될 수 있다.

- ①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 **4.**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 ② 인간은 인간 배아와 유전적 특징이 다르지 않다.
  - ③ 인간 종의 구성원들 중에는 인간 배아도 포함된다.
  - ④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다.
  - ⑤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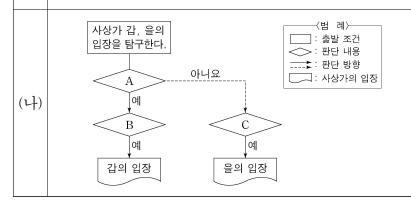
-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광고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 갑: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 을: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면, SNS가 허위·과장 광고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①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②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③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가?
  - ④ SNS는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가?
  - ⑤ SNS는 허위·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사람의 본성에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데도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도끼로 산의 나무를 아침마다 베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싹을 자르기 때문이다.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禽獸)와 같아진다.
  - 을: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어 물을 때맞춰 주고 온도를 유지해 주면, 이 인연(因緣)으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얽매임에 집착하면 애욕(愛欲)과 함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 ① 갑: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
  - ② 갑: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
  - ③ 을: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소멸될 수 없다.
  - ④ 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 ⑤ 갑과 을: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을: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



-<보 기>-

□. A: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L. B: 국가는 신의(信義)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C. B: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리. C: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① ¬, ∟

(7)

- ② ¬, ⊏
- ③ □, 글

- ④ 기, ㄴ, ㄹ
-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 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다.

#### <문제 상황>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다.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필요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서로 무관함을 고려하세요.
- ②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③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고려하세요.
- ④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고려하세요.
- ⑤ 먹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함을 고려하세요.
-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보 기>—

- □.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 37. 57. 40 4. 57. 4. 5 ① ¬ (2) L
-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며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선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 ①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에 근거해야 한다.
- ②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 ③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 ④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

-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법은 공공 의사의 표현이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니 얼마나어리석은가.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이전쟁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 을: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위법 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다.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보 기>--

- □. 갑: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다.
  □. 갑: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
  □. 을: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 갑과 을: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 17, 27, 57, 57, 57, 57, 57, 57, 57, 57
-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u>않은</u> 것은?
  -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물건 사용의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어야 한다.
  - 청렴한 선비는 벼슬자리에 부임하러 갈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데, 이때의 가족이란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다. 형제 간에는 가끔 왕래해도 되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 ①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이익보다는 청렴을 중시해야 한다.
  - ② 자애의 덕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
  - ③ 청백리가 되려면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 ④ 세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⑤ 공적 재산이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性)은 사적 자유의 영역을 넘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와도 관련됩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이 정당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 이야말로 성의 근거입니다.

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굳이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 ① 갑: 성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보다 중요하다.
- ② 갑: 출산과 양육은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 ③ 을: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을: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로 충분하다.
- ⑤ 갑과 을: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

-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 을: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이다. 즉,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던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이다.

**一<보 기>**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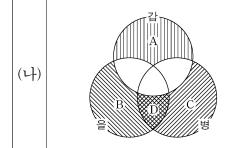
- 그. 갑: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나. 을: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 ㄷ. 을: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 ㄹ. 갑과 을: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 ① 7, ⊏

(フト)

- ② ㄱ, ㄹ
- ③ ∟. ⊏

- ④ 7, ∟, ㄹ
- ⑤ ㄴ, ㄷ, ㄹ

-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 을: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 병: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 기>-

- □.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L.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다.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리.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① 7, L ② 7, C ③ L, C ④ L, Z ⑤ C, Z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국제 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 의무이다. 국가는 세계 시민법에 따라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 을: 국제 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 균형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 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 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의 본질상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① 갑: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 ② 갑: 국가 간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국제 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다.
- ④ 을: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 ⑤ 갑과 을: 국제 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잡: 사람에게 인(仁)은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과 불로 인해 죽은 사람은 보았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 을: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이러한 이치에 통달한 지인(至人)을 물과 불이 다치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해칠 수 없으며, 짐승들마저도 죽이지 못한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삶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 ② 갑: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道)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을: 죽음은 삶에서 지은 업(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다.
- ④ 을: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운명[命]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은 그 규모와 대상,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전통 윤리학의 틀로서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행위의 변형된 본질로 인해 윤리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 ①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 ②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③ 기술로 얻은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④ 과학 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는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 ⑤ 전통 윤리학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을: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 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보 기>--

- ㄱ. 갑: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갑: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 ㄷ. 을: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정언 명령이다.
- 리. 갑과 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 ① 7, ⊏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7, ∟, ⊏
- ⑤ ㄴ, ㄷ, ㄹ

###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 간의 관용과 적극적인 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무엇보다 자신의 종교만을 맹신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에 기인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국가 안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주요 종교들에는 비폭력과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동반 관계 등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① 종교 간의 평화 실현에 타인과의 대화 역량은 불필요하다.
- ② 다른 종교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다.
- ③ 종교의 통일이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 ④ 종교 간의 갈등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 ⑤ 편견 없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일이 평화로운 공존의 초석이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